

노동시장 환경에 적절한 임금체계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노동시장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고성장 경제를 누리고 있었고 고출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저성장 경제 기조로 들어섰고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공급도 과거보다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경제활동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하여 보면 향후 이러한 노동인력 감소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인력 감소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찾아나서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먼 훗날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중요했기 때문에 연공급 중심의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중요했다면,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직무의 가치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편 및 임금체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직무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인사관리를 시행하였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직무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해왔던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문제점 및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의 연공급 중심의 마인드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변

화의 요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종합급 혹은 하이브리드형 임금체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 호에서는 한 국가의 노동시장 환경변화가 임금체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체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8~2009년의 금융위기의 영향, 보수당 정부가 제도화한 법안, 노동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 미국 등에서 발전한 인적자원 및 보상관리 개념 도입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대처총리 집권 기간 동안 시장 및 성과 관련 요인들이 임금체계에 강한 영향을 미쳐 시장기반 및 성과기반 임금체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8~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어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 및 임금에 대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고용은 높은 수준이지만 근로자들은 숙련부족 및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몰입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경제성장 기간 중에 실질임금이 하락하였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후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중요한 과제이었고 따라서 연공급이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였다.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단순한 인력수급보다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중요하게 되자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능자격제도(능력주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직능급이 사실상 연공급화되고 일본 경제가 버블경제로 인해 경제침체에 빠지자 임금제도에 성과주의를 도입한 역할급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임금곡선은 여전히 나이에 따라 50대까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기울기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로 이행할 것을 선언하고 노사가 업무, 역할, 공헌을 임금체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 및 사회는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국가 및 사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주요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및 사회의 임금체계를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 및 사회에서 어떤 논의와 어떤 고민을 거쳐 왜 지금의 임금체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시장 환경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어떠한 고민을 거쳐 어떠한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향후 수십 년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질서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ICLI**